

수니파와 쉬아파의 분쟁에 대한 정치적 이해(시리아와 예멘 사태를 중심으로)
서동찬(한반도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The Political Understanding of the Sunni-Shia Conflict
(Based on the Situations in Syria and Yemen)

Abstract

The Sunni-Shia conflict can be defined a modern phenomenon in the history of Islam. History is an interpreted fact, so an interpretation of the past is based on projecting the present into the history. The Sunni-Shia conflict is causing especially fatal consequences now in Syria and Yemen, leading to numerous deaths and refugees. Saudi Arabia and Iran, the two leading leaders of Sunni-Shia, are driving Syria and Yemen into the flames of their proxy war. Thus, in other words, sectarian conflict is more destructive in the context of political conflict than in religious contexts. Islam was mainly Sunni from the beginning, and Shia was not as strong as it was to be an axis of conflict. Although the political forces that tried to overthrow the Sunni Muslim dynasties used Shi'ite ideology for the successful founding of the new Muslim kingdoms such as Fatimid Caliphate (909-1171 CE), Buyid dynasty (934-1062 CE), Safavid dynasty (1501-1736 CE), the emergence of these dynasties should be seen as a politically interpreted and activated sectarian movement rather than as the result of the Shi'a sectarian movement.

This study works for the analysis of the Sunni-Shia sectarian conflict. Saudi Arabia achieved national formation by combining the fundamentalist Sunni Islam of Wahhabism with the political power of the Saudi royal family. In contrast, the 1979 Islamic Revolution in Iran led by Khomeini emerged as the result of an anti-Western and anti-systematic movement, with Shia Islam at the forefront as a national ideology. In the 1970s, Saudi Arabia was able to become a regional power by securing huge oil money by weaponizing oil, and by spreading Wahhabism around the world, it hopes to expand the country's geopolitical interests to the entire Muslim world. Iran in the 1970s was in a state of backwardness due to the decadence of Western imperialism, the depraved monarchy and neighboring countries that had fallen into the claws of Western interests. To break this reality, Iran's Khomeini sought to revolutionize corrupt and unjust secular civilization in accordance with the spirit of Shia Islam and to succeed in the permanent revolution of Islam For Iran at that time, Iraq's Shi'a people, Syria's Assad Shia ruling forces and Lebanon's Shi'ite minority groups were noted for their ease of forming alliances, and Saudi Arabia accepted this kind of Shi'ite movement as a threat and challenge. Thus, the Sunni-Shia sectarian conflicts spread beyond individual countries to regional scale, and began to take on the character of proxy warfare. The 2003 U.S. invasion of Iraq resulted in the removal of Iraq's Shi'ites from a Sunni crackdown, resulting in the expansion of Iran's regional influence. In addition, with the spread of the Islamic international movement, quasi-state armed networks such as al-Qaida have transcended the country and built it into a global new cold war following the U.S. Cold War. The 2008 U.S. financial crisis has shaken the balance between world politics and power. Anti-authoritarian democratic movements that had been suppressed have erupted into the Arab Spring, and in areas where sectarian tribal power relations are complex, such as Syria and Yemen, have erupted into civil war of mass destruction. At the center of sectarian conflict and conflict was Iran-Saudi Arabia's proxy war, and outside the stage of such sectarian conflict, the competition for hegemony was waged by big powers like the United States-Russia-China. Thus small countries such as Yemen and Syria, which have sectarian contradictions, have fallen into the modern history of tragedy.

This study analyzes the mechanism of these sectarian conflicts, namely Iran and Saudi Arabia's proxy warfare, and based on the case of Syria as a criterion of comparison, sought the way of possible solutions for the sectarian conflict in Yemen. In the end, the

simplest, easiest, and most basic solution for establishing a peace regime is the construction of a democratic state. Syria and Yemen should rebuild normal states in accordance with democratic procedures. Although it implies sectarian differences, it should create a democratic order in which differences are recognized maturely by respect for trust and diversity, not by discrimination or oppression. This is the only way to prevent outside hegemonic forces from driving sectarian differences in individual countries into a fractious conflict in the form of divide-and-rule. It will be a way for neighboring powers not to use sectarian differences and not to intervene in proxy warfare, destroying the nation.

Keywords: Sunni-Shia, Proxy Wars, Wahhabism, Saudi Arabia, Iran, Sectarian, Syria, Yemen

I. 서론

모든 종교는 종파적 분열을 통해 분화되고 확산한다고 할 수 있다. 유일신 알라를 믿는 이슬람 공동체도 크게는 수니파와 쉬아파로 분화하여 각각의 발전 역사를 밟아왔다. 무함마드는 아라비아 반도의 거의 전 영토를 통일하고서도 공식적으로 후계자를 지목하거나 권력 승계의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갑자기 사망했다. 무슬림 움마는 무함마드 사후 해체의 위기에 직면했지만 4 명의 정통 칼리프 시대를 거치면서 영토 팽창을 멈추지 않았다. 아들이 없었던 무함마드는 조카이면서 딸 파티마의 남편인 알리를 통해 이슬람 공동체를 이끌어가게 할 수 있었지만, 혈통보다 공동체의 합의에 의한 선출의 방식으로 권력은 승계되었다. 그렇지만 다마스쿠스의 우마이야 가문이 혈통적 방식으로 권력을 승계하자 이에 불만을 가진 세력들은 무함마드의 가문의 혈통인 알리의 아들과 그 후손(이맘)을 통해 새로운 이슬람의 신학 체계를 구축하고자 했다. 그래서 무함마드의 언행인 순나를 따라 지도자를 결정했던 수니파 이슬람과 이에 반대하여 무함마드의 혈통에 의한 계승에 찬착했던 쉬아파 이슬람이 분화했다.

1648년 웨스트팔렌 조약 이후 생겨난 서구의 민족-국가 시스템이 이슬람 세계를 지배하면서 오늘날과 사우디 아라비아, 예멘, 바레인, 오만, 아랍 에미레이트(UAE), 이라크, 이란, 시리아, 레바논, 이집트, 파키스탄 등과 같은 국가들이 형성되었지만, 이들 국가들 내부의 무슬림 대중은 여전히 수니파와 쉬아파로 분리되어 있다.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는 종교나 종파적 차이보다 민족을 단위로 국가 공동체를 형성하기 때문에 수니파와 쉬아파 사이의 종파적 갈등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없었다. 다시 말해서 국가 공동체의 기본 단위가 민족이기 때문에 수니파나 쉬아파와 같은 종파적 차이가 정치적 분열의 요소로 작용할 수 없었다. 모든 국민은 종교와 지역과 종족에 따라 차별 받지 않고 동등한 시민으로 공동의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니파와 쉬아파를 종파적 차이로 보고 동일한 이슬람의 뿌리에서 분화한 쌍둥이로 보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이슬람 국가 내부의 종파적 갈등의 지뢰를 끌어안고 있고 언젠가 분리주의 운동으로 정치화 하면서 국가 해체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종파적 차이는 언젠가 정치적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다.

국가 내부의 종파적 분쟁이 활성화한 상태에서 국가 외부로부터의 개입이나 간섭이 중층적으로 영향을 미칠 경우 종파적 갈등의 파괴력은 한층 심각한 양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 만일 외부로부터의 영향력이 국가적 수준의 것이라면 종파적 갈등은 지역 국가들 간의 국제전으로 발전하게 되고, 강대국들의 개입을 불러와 대리전(proxy war) 양상으로 격화될 수 있다.

무엇보다 민족과 종파가 결합한 강국들이 지역 안에서 주요 갈등 주체로 등장하게 되면 분쟁은 격화될 수밖에 없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민족적으로는 동일하지만 힌두교와 이슬람이라는 종교적 차이를 단위로 독자적인 국가를 형성했다. 종교가 민족을 대체한 경우가 인도와 파키스탄이다. 반면 아랍 민족과 수니파 종파 이데올로기가 만나 국가가 된 것이 사우디 아라비아라면, 이란 민족과 쉬아파 종파 이데올로기가 결합하여 등장한 국가는 1979년 이후의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민족적으로는 동일하지만 종교적 차이 때문에 양국 사이의 갈등은 핵전쟁의 위기 국면으로까지 심화되었다. 양국 사이의 정치적 갈등이 종교적 갈등을 도구적으로 이데올로기화 했다고 봐야 할지 아니면 종교적 차이가 양국 간의 정치적 충돌의 원인이라고 봐야 할지 분명치는 않다. 그렇지만 종교 갈등은 정치적 변수를 떠나서

설명할 수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수니파와 쉬아파의 분쟁 또한 정치적 차원을 배제하고 순수한 종파적 갈등으로만 이해될 수 없다. 더욱이 사우디 아라비아와 이란은 민족적 층위와 종파적 층위라는 차이를 중층적으로 내포한 대립적인 갈등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수니파와 쉬아파의 종파적 갈등은 사우디 아라비아와 이란이라는 국가들 사이의 정치적 충돌로 해석해야 한다. 이는 다른 말로 하자면 수니파와 쉬아파의 종파적 차이는 오랜 역사적 기원을 두고 있지만, 이들 종파적 분쟁은 현대적 현상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처럼 종파적 공통 토대를 기초로 형성된 국가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 바레인, 쿠웨이트, 사우디, 이라크, 레바논과 같이 구성 단위가 복잡한 국가들이 종파적 분쟁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 있다. 석유와 같은 천연 자원이 지정학적으로 강대국을 유인하는 상황이라 국제전 혹은 대리전의 혼돈은 더욱 심각할 수 없다.

본 연구는 이러한 수니파와 쉬아파의 종파적 차이가 분쟁의 양상으로 증폭하여 강대국들과 서아시아 지역 내의 여러 국가들이 왜 중층적 대리전 양상으로 대립하는지 정치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사우디 아라비아의 남부 국경선을 접하는 예멘에서의 종파적 분쟁은 2015년 이후 8,670-13,600 명의 전쟁 사망자와 기근으로 인한 5만명의 아동사망자를 초래했다¹.

예멘은 종파적 분쟁으로 인해 실패한 국가의 늪에 빠졌고 지역적 층위에서는 이란과 사우디 아라비아, 그리고 국제적 층위에서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이 간접적으로 연계된 중층적 대리전을 겪고 있다. IS로 인한 시리아 내전이 거의 해결 국면에 접어들었다면 예멘의 종파적 내전은 아직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예멘을 중심으로 수니파와 쉬아파의 분쟁을 정치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지구촌 시민사회가 어떻게 이 비극적 사태를 이해해야 할지 해결의 가능 지점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수니파와 쉬아파의 종파적 분쟁의 중층적 결절점에 대한 역사적, 비교정치학적 분석 방식을 취하며, 아랍의 봄 이전과 이후로 시기를 구분하여 해당 국가들의 종파적 분쟁의 국가적, 지역정치적, 그리고 국제정치적 층위의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2011년 아랍의 봄 이전의 분쟁의 결절점으로 주목하는 것은 이란과 사우디 아라비아의 종파적 분쟁의 기원(1924-1979년), 1979년 이란의 이슬람 혁명으로 촉발된 신 냉전(1979-2003년), 그리고 미국의 이라크 침공으로 인한 혼돈(2003-2011년) 등이며, 아랍의 봄 이후의 국면에 관하여는 종파적 분쟁의 폭발지점인 시리아와 예멘을 비교 연구의 대상으로 하여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의 가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2011년 아랍의 봄 이전의 종파적 분쟁에 대한 역사적 분석

1. 수니-쉬아 종파적 분쟁의 역사적 단초(1924-1979년)

1924년 압둘 아지즈 알-사우드(Abdul Aziz al-Saud)가 메카를 정복하고 1932년에 헤자즈와 네즈드의 두 왕국을 통일한 사우디 아라비아 왕국의 등장은 수니파 이슬람의 정치화를 불러왔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와하비즘이라는 원리주의적 수니파 이슬람과 사우드 왕가가 세력을 융합하여 독특한 종파적 민족국가를 형성했다. 와하비즘은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제국주의 세력에 의해 침탈을 당하자 그 원인을 수피즘으로 보고 이슬람 신앙의 본질로 회귀하는 운동을 전개했다. 수피즘 계열은 이슬람은 소아시아, 카프카스,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지역에서 이슬람 민간 신앙으로 대중화된 수니파 신앙이다. 이슬람 역사에서 압바스 왕조 시기가 되면 샤리아가 무슬림 사회의 전 영역을 포괄할 수 있을 정도로 완성이 되고 따라서 국가의 법체계와 같이 복잡하고 실정법 조문화 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샤리아 법 전문 집단의 세력이 강해지며 이는 일반 무슬림 대중의 신앙과 괴리를 초래하였다. 수피즘은 일반 무슬림 대중이 복잡한 샤리아 지식이 없이도 고유한 방식으로 직접 알라를 체험하는 영성의 길을 열어줬기 때문에 단순하고 경험적인 아래로부터의 이슬람 개혁 운동으로 각광을 받았다. 알라를 만나는 독특한 길을 가르치는 종단의 창시자를 중심으로 제자들이 모이고 종단별로 경제적, 신앙적 공동체로 발전하면서 특히 오스만

¹ "50,000 children in Yemen have died of starvation and disease so far this year, monitoring group says." <https://www.chicagotribune.com/news/nationworld/ct-save-the-children-yemen-20171116-story.html> (accessed Feb. 20, 2019).

제국 시기는 대중 생활은 기초 단위로 자리 잡았다. 그런데 오스만 제국이 서구의 침략을 당하며 병든 거인으로 전락하자 이슬람 세계는 그 원인을 종교적으로 찾고자 모색했고 아라비아 반도의 와함은 수피즘으로 대표되는 대중 이슬람의 타락에 주목하여 선조(살라피스)의 순수 신앙으로 복귀하는 강력한 원리주의 운동을 전개했고, 이를 통해 반제국주의, 반오스만주의 신사회 건설을 설펠했다. 이에 사우디 왕가라는 탈오스만적 독립 국가를 염원하던 세력과 결합하면서 와함주의 국가로 성장한 것이 사우디 아라비아이다. 영국의 식민지에서 단독 국가를 설립한 압둘 아지즈 알-사우드는 대중 지지의 명분으로 와하비즘을 채택하여 국가 건설에 성공했던 것이다. 따라서 와하비즘은 정치적으로 보면 이는 수피즘 중심의 오스만 제국에 대항하는 변방의 이슬람 개혁 운동이었고 민족적으로 보면 투르크 민족에서 분리하여 독자적인 아랍 국가를 세우고자 했던 민족주의 운동이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민족주의와 종교적 원리주의가 결합한 사우디 아라비아의 등장은 필연적으로 지역 내에 종파적 갈등을 활성화는 결과를 초래할 단초가 되었다. 그러나 1차 세계 대전 이후 지구촌의 지배적 이데올로기는 민족주의와 웨스트팔렌 체제에 뿌리를 둔 주권 국가 원리였기 때문에 와하비즘과 같은 종파적 특이성이 갈등의 원인이 되기엔 거리가 멀었다. 웨스트팔렌 정신은 종교와 정치를 분리시키고 탈종교적 세속주의 원리에 따라 정치 공동체를 형성하는 원칙 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슬람은 신앙의 영역을 그리고 기타 공동체의 일반 영역은 자연법에 기초한 세속원리가 지배적일 수밖에 없다. 오스만 제국의 해체 이후 소아시아는 이러한 세속적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에 기초하여 터키 공화국이 수립이 되는데, 이를 주도했던 투르크 민족주의 지도자 케말 파샤는 서구적 공화정의 모델을 고수하여 이슬람은 철저히 종교적 영역에 묶어 두었다. 따라서 사우디 아라비아가 와하비즘이라는 민족주의를 대체하는 이슬람주의에 근거한 정치체로 등장했지만, 오스만 제국과의 관계는 아랍과 투르크라는 민족적 층위에서의 긴장 관계일 따름이었다.

다른 한편 1920년대 페르시아 민족주의를 내세운 이란이라는 또 하나의 지역 강국이 등장한다. 1925년 영국의 지원으로 쿠데타를 통해 카자르 왕조 전복한 이란의 레자 칸(Reza Khan)은 터키와 같은 탈종교적 근대 민족국가를 꿈꿨다. 페르시아 지역은 16세기 사파비드 왕조 이후 쉬아파 이슬람을 국가 종교로 채택함으로써 소아시아의 수니파 오스만 제국과 경쟁했다. 그러나 레자 칸은 페르시아 혹은 쉬아파 정체성 보다 고대 아리안 민족 정체성을 선호했고 터키 공화국과 같은 세속적 민족주의 국가 모델을 추구했다. 그래서 국명에도 페르시아나 이슬람이 아닌 민족적 개념인 이란을 채택했다. 따라서 종파적 측면에서 볼 때 사우디아라비아 와하비즘과 이란의 쉬아파는 분쟁의 단초가 될 수 있었지만 종파적 분쟁으로 치닫지는 않았다. 물론 레자 칸(Reza Khan)은 자칫 와하비즘이라는 원리주의적 수니파 이슬람이 자국 내의 종파적 갈등을 자극하지 않을까 의심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란 왕정 안에도 수니파 무슬림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란과 사우디 아라비아는 석유 자원의 주공급지였기 때문에 서구 열강은 지역의 절대적인 정치적 안정을 원했고 종파적 갈등은 봉쇄되었다.

국제정치적 층위에서 당시 세계는 미소 냉전 체제에 분할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욱 지역정치적 층위에서 종파 갈등은 주요 변수가 될 수 없었다. 다시 말해서, 수니파와 쉬아파 이슬람의 변수보다 이 시기의 이데올로기적 충돌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대립 구도를 중심으로 전개 된다. 1950-60년대부터 이집트, 이라크, 시리아, 알제리, 북예멘를 중심으로 사회주의 경향의 아랍 민족주의 세력이 정치 권력을 장악한다. 사우디 아라비아와 국경을 접하는 북예멘의 사다 지역의 경우 1918년 오스만 제국이 몰려나자 쉬아파 무타와킬리트 예멘 왕국(Mutawakkilite Kingdom of Yemen, 1918-1962)이 들어섰지만, 1962에 이집트의 나세르에 영향을 받은 사회주의 세력의 쿠데타에 의해 왕은 축출되었고, 예멘 아랍 공화국이 선포된다. 그러나 사우디 아라비아는 나세르의 사회주의 세력이 북예멘에 진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무타와킬리트 예멘 왕국의 남은 저항 세력들을 지원했고, 그리하여 북예멘은 1976년까지 내전에 빠지고 만다. 그러나 이집트가 1967년 제 3차 중동전쟁에 참전하면서 북부 예멘 지역에서 철수하자 내전은 종식되고 군부 세력과 하쉬드 부족연맹체가 지배하는 예멘 아랍 공화국 (YAR, North Yemen)을 생긴다. 쉬아파가 다수인 북부 예멘 왕조를 사우디 아라비아가 군사적으로 지원한 것은 이집트의 사회주의 세력이 남부 국경 지역에 거점을 마련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사우디 아라비아와 북예멘의 종파적 차이는 사우디 아라비아-이집트의 아랍 민족 내부의 경쟁과, 미국-소련의 냉전에 의해 덮였든 것이다.

다른 한편, 영국의 지배를 받던 남예멘 아덴과 남부 아라비아 지역은 196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여 사회주의 성향의 남예멘 인민공화국을 수립한다. 그리고 소련,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들은 남예멘을 지원한다.

2. 이란의 이슬람 혁명과 종파적 신 냉전(1979-2003년)

1979년 쉬아파 원리주의로 전면에 내세운 호메이니 이슬람 혁명이 발발하자 지역 내 종파적 갈등은 국제전 양상으로 증폭한다. 호메이니 이란 혁명은 지역 내 종파적 균형 흔들고 신 냉전 환경을 초래했다. 호메이니는 타락한 친서방 샤 정권을 타도하고 순수한 이슬람 국가 목표로 대중을 혁명으로 이끌어갔다. 이슬람 성직자 통치(velayat-e faqih)를 표방한 호메이니의 이상은 이란을 뛰어넘어 전 무슬림 세계의 지도자로 인정받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그는 이슬람 혁명 수출을 목표로 설정하고 아프가니스탄, 바레인, 이라크, 레바논, 파키스탄 사우디 아라비아 등 특별한 쉬아파 아젠다를 가진 세력들을 지원했다².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수많은 하지 순례자들을 파견하여 메카에서 시위를 일으키며 쉬아파 혁명 메시지 전파했다. 호메이니는 사우디 정권을 공개적으로 정통적이지도 순수 이슬람적이지 않다고 비난했다³. 이에 대항하여 사우디 아라비아는 막대한 오일 머니를 투입하여 쉬아파 부흥을 차단하고 반대로 와하비즘의 확산에 주력했다. 이란 이슬람 혁명의 불길기 인구의 59%⁴가 쉬아파인 이라크로 번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사담 후세인은 이란과의 전쟁을 선포한다. 사담 후세인은 자칫 이라크 내부의 수니파와 쉬아파의 종파적 분쟁으로 격화될 수 있는 상황에 순발력 있게 대응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담 후세인은 이라크의 종파적 분열을 차단하기 위해 아랍-이란 민족주의 갈등 프레임으로 국면을 전환시킨 것이다. 이라크 남부의 쉬아파 대중이 이란의 쉬아 세력과 결합하지 못하도록 이란이라는 외부의 적을 내세워 내부 결속을 노린 것이다. 이것을 통해 사담 후세인은 이라크의 쉬아파 대중이 종파적 정체성보다 이라크 아랍 민족주의 정체성을 갖고 이란과 전쟁하게 한 것이다. 이란-이라크 전쟁은 서로 다른 두 민족들 사이의 전쟁이었다⁵.

한편, 이란 이슬람 혁명에 놀란 미국은 적극적으로 이라크 바트당 정권을 군사 경제적으로 지원했다. 여기에 쿠웨이트, 오만, 이집트, 요르단 등도 이라크를 지원함으로써 이란의 쉬아파 혁명을 봉쇄하고자 했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이란-이라크 전쟁이 한창이던 1981년 쿠웨이트, 아랍 에미리트, 카타르, 바레인, 오만과 함께 걸프협력기구(Gulf Cooperation Council) 결성한다. 이것은 사우디 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지역 통합 기구로서 미국의 영향력을 위한 지배적 도구이면서 동시에 이란의 역할을 억제하는 수단이다. 이란 이슬람 혁명의 확산이 가져오는 위협을 차단하는 것이 걸프협력기구의 주요한 목적이었다⁶. 미국 정책을 지원한 댓가로 GCC 국가들은 미국으로부터 무기 공급받고 미국의 핵우산의 보호를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란 정부는 레바논 남부의 쉬아파 무장 집단인 헤즈볼라, 가자 지역의 하마스, 그리고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 지원했다. 시리아의 알-아사드(Hafez al-Assad)는 1970년 9월에 권력 장악했지만 알라위 소수파 소속으로서 다수파 수니 국민을 통치해야 했다. 따라서 아사드 지배의 시리아의 경우 수니파와 쉬아파의 종파적 범주보다 바트당의 사회주의 세속 이데올로기를 국가 질서의 근본으로 삼았다. 바트당 사회주의는 아랍 민족주의 운동으로서 수니파든 쉬아파든 종파적 차이보다 아랍 민족으로서 서구 제국주의라는 공동의 적에 맞서 싸우며 반제국주의 반식민주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수 세력인 수니파를 억압하고 필요할 때는 군사력으로 제압했다. 이란의 12이맘파 쉬아 이슬람의 관점에서 시리아의 알라위는 정통 쉬아가 아니지만, 1979년 권력 장악 후 호메이니 알라위는 쉬아파의 한 분파로 인정했다.

그리하여 이란-이라크 전쟁에서 시리아는 이라크에 등을 돌렸고, 이란에게는 유일한 아랍 동맹국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시리아는 이란에게 레바논의 쉬아파 공동체와 연결하는 통로를 제공했다. 이란은 레바논을 중시하여 영향력을 확대했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교두보로 삼았다. 이란은 레바논 내정을 간섭하기 위해 무장 단체인 헤즈볼라를 결성했고, 레바논 남부에서

² Geneive Abdo et al., "The Sunni-Shia Divid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CFR).

<https://www.cfr.org/interactives/sunni-shia-divide#!/sunni-shia-divide/>(accessed Feb. 20, 2019).

³ Vali Nasr, *The Shia Revival: How Conflicts Within Islam Will Shape the Future*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2007).151.

⁴ Religion in Iraq.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Religion_in_Iraq/(accessed Feb. 20, 2019)

⁵ Ramazani, R. K., *The Arab-Iranian Conflict: The Ideological Dimensions*. (New York: Praeger, 1984).21.

⁶ Ghalib Tulhab Etaibi, "Gulf Cooperation Council: Arabia's Model of Integration"(PhD. diss. Boston College), 1984, 144.

이스라엘을 향한 게릴라 전투 감행했다. 여기에 이란과 시리아는 헤즈볼라 지원했다.

이와 같이 1979년 이란 호메이니 혁명은 사우디 아라비아의 와하비즘을 위협하는 반대축이 되었고, 시리아, 레바논 헤즈볼라와 더불어 쉬아 블록을 형성하여 수니파 아랍국가들과 이스라엘, 그리고 미국에 대항했다. 다시 말해서, 1979년 이란의 이슬람 혁명은 오늘날 서아시아에서 종파정치 분수령이 되었다. 호메이니의 시아 이슬람 우월성 주장과 범아랍주의를 추구하는 아랍 정권들에 대한 거부는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도전으로 인식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탈미즈 아흐마드(Talmiz Ahmad)는 이란 이슬람 혁명을 현시대 지역 정치에서 종파주의 관념의 시작으로 규정한다⁷.

그 후 1989년 호메이니가 사망하고 최고성직자 지위를 하메네이(Ayatollah Ali Khamenei)가 승계하고, 실용주의자 라프산자니(Hashemi Rafsanjani)가 대통령이 되면서, 사우디-이란 관계는 데탕트 국면을 맞는다. 이듬해 1990년 8월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자 사우디-이란 관계는 공동 대응을 위해 완전히 복원된다. 이란의 하타미 대통령 집권 시기는 의약과 밀수 금지를 위한 협약도 체결하고, 유가 하락에 공동 대응하여 생산량 감축에 합의하기도 한다.

3. 미국의 이라크 침공으로 인한 종파 분쟁의 격화(2003-2011년)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사우디 아라비아와 이란의 힘의 균형을 뒤흔들었다. 사담 후세인이 통치하던 이라크는 아랍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를 통해 수니파와 쉬아파의 종파적 갈등을 봉합할 수 있었다. 이라크는 민족적으로 중남부의 아랍과 북부의 쿠르드족, 그리고 종파적으로는 수니파와 쉬아파로 쉽게 분열로 치달을 수 있는 취약성을 갖고 있었다. 사담 후세인이 부서지기 쉬운 이라크를 통일 국가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은 바트당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이다. 사회주의는 기본 모순을 자본과 노동으로 보기 때문에 아랍과 쿠르드족과 같은 민족적 분열 프레임을 계급적으로 봉합할 수 있다. 아랍의 노동자와 쿠르드족의 노동자는 동지로서 연대할 수 있다. 수니파와 쉬아파의 종파적 갈등은 사회주의 이상으로 사담 후세인은 통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의 분파주의(아랍 vs 쿠르드, 수니파 vs 쉬아파)는 사담 후세인의 권위주의 통치로도 쉽게 그 뇌관을 제거할 수 없는 시한폭탄이었다. 이라크 내의 많은 쉬아파는 억압 상태에 있다고 여겼고, 사담 후세인은 남부의 쉬아 지역을 의도적으로 발전에서 낙후 시켰다. 사담 후세인은 쉬아파 종교 지도자들 수시로 제거했고, 쉬아 종교 축제도 금지했다. 그렇기 때문에 2003년 미국의 침공 때 이라크의 대 아야톨라 알-시스타니(Sayyid al-Sistani)가 이끈 쉬아파 공동체는 미국의 바그다드 진입에 저항하지 않았다. 쉬아파가 주도할 수 있는 정치적 기회로 여겼던 것이다. 미국은 이러한 쉬아파의 목인을 친미로 해석하여, 쉬아파 세력을 전후 이라크가 민주적, 세속적, 경제적 변형 국가로 재건하는데 필요한 협력 세력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런 틈을 타서 알-시스타니는 쉬아파 부흥과 쉬아파 통일 세력을 구축하는데 힘을 쏟았다.

미군정은 탈바트당 정책을 시행했고, 수니파 소속의 종교, 군사, 정치 지도자들을 퇴출 시켰다. 수니파 지도자들의 쉬아파 비난과 충돌의 와중에서 2005년 총선에서 쉬아파 정치세력은 의회의 48% 득표로 과반수 이상의 의석 확보했다. 그러나 수니파의 종파적 무장 투쟁은 더욱 격화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마르크 린치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지역 안에서 종파주의 부상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지적한다⁸.

미군의 침공 이후 사담 후세인 통치 시기에 수니파의 지배에 숨죽이고 있었던 쉬아파가 이라크의 정치 권력을 장악하자 이란의 영향력이 급속히 강화되었다. 이란은 이라크의 쉬아파 정부 적극 지원했다. 2008년에는 이란과 이라크 사이에 각종 경제협정들이 체결되어 경제적 유대는 한층 강화된다. 이란에게 이라크는 중요한 쉬아파 동맹이다. 쉬아파가 이라크의 다수 인구이며, 시파아 성지, 아슈카리 사원, 나자프, 카르발라와 같은 쉬아파 역사의 심장과 같은 지역이 모두 이라크에 있다. 이란은 이라크의 최대 무역 파트너가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란은 사드르의 마흐디군(Sadr's Mahdi Army)과 같은 쉬아파 무장 조직들 지원하여 미군을 공격하고 수니파 대중을 대상으로 테러를 자행했다. 바그다드의 정권 변동 이후 지역 가장 중대한 지정학적 변화는 이란의 이라크 관계라고 할 수 있다⁹. 사담 후세인 이후의 이라크에 대한

⁷ Talmiz Ahmad, Turmoil in West Asia: The Sectarian Divide Shapes Regional Competitions(New Delhi: IDSA, 2016). 7.

⁸ Mark Lynch, The Arab Uprising: The Unfinished Revolutions of the New Middle East(New York: Public Affairs, 2012). 4.

⁹ Prasanta Kumar Pradhan, Arab Spring and Sectarian Faultlines in West Asia: Bahrain, Yemen and

이란의 결속은 단지 이데올로기적 기반 위에 있지 않고 이라크의 권력 균형과 지역 정치에 쉬아파의 역할을 전략화시키는 데 있었다¹⁰. 바레인, 예멘, 시리아, 레바, 요르단 등 많은 국가들에서 쉬아파는 지배 권력에 의해 억압당하고 주변화 되어 있는데, 이라크에서의 이러한 쉬아파의 성공은 이들 국가들 내부의 쉬아파 가운데 확신을 주기에 충분했다.

따라서 미군 침공 후에 이라크의 정치 지형의 변화는 사우디 아라비아의 우려를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바그다드의 쉬아파 정권이 지역 내에서 자국의 이익을 방해할 것으로 확신하게 되었다¹¹. 1979년 이란 호메이니 이슬람 혁명으로 수니파와 쉬아파 사이의 신냉전을 초래했다면, 2003년 미군의 이라크 침공은 수니파 벨트와 쉬아 블록의 종파적 갈등을 더욱 광범위하게 심화시켰다.

미군이 이라크를 점령한 후 민주적 국가 재건 작업에 착수했지만, 미국의 목표대로 이라크의 정치 상황은 안정되지 않았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이어진 사담 후세인 숙청은 다수파 쉬아파 대중을 해방시키고 권력을 장악하게 했는데, 이것이 수니파의 불만을 제공했던 것이다¹². 누리 알 말리키(Nouri Al Maliki) 쉬아파 세력은 정부 구성에 있어서 수니파를 무시하고 차별하여 반감을 일으켰다. 이를 틈타 사우디 아라비아는 이라크 내 수니파 아랍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면서 이라크는 이란과 사우디 아라비아의 각축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III. 아랍의 봄과 종파적 분쟁의 대리전(proxy wars)

2011년 1월 튀니지의 장기 독재자 벤 알리(Zine El Abidine Ben Ali)가 축출당한 후 도미노처럼 아랍의 민주화 요구는 서아시아와 북아프리카에 확산했다. 이집트의 무바라크, 리비아의 가다피, 예멘의 살레(Ali Abdullah Saleh)도 권좌에서 물러났고 격한 민주화 투쟁은 알제리, 시리아, 요르단, 바레인, 오만, 사우디 아라비아를 휩쓸고 지나갔다.

2007년 미국발 세계 금융 위기로 인해 지구촌을 뒤흔든 대충격이 서아시아 지역을 강타하면서 아랍의 봄과 같은 정치적 격변을 초래했던 것이다. 아직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 격변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진원지인 미국이 상대적 안정 상태로 돌아왔다면 시리아와 이라크와 예멘의 경우 반대로 분쟁으로 인한 죽음과 난민과 질병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무엇보다 이들 지역이 수니파와 쉬아파로 대별되는 종파적 갈등과 분열의 단초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실패한 국가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 더욱 간단하지 않다.

아랍의 봄이 불러 일으킨 정치적 격변의 파동이 여러 겹 지나간 시점에서 종파적 요소들이 정치적 충돌과 내전 그리고 강소국들의 대리전 양상으로 해결의 기미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상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국가적 차원에서 종파분열이 극단적으로 복잡한 시리아와 예멘을 중심으로 종파 분쟁의 양상과 실태를 심도 깊게 짚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분석의 차원을 넓혀서 지역정치적 층위에서 종파 갈등의 양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이란과 사우디 아라비아의 종파적 경쟁 문제를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1. 시리아 내전과 종파적 분쟁

시리아에서 시위는 4명의 시민들이 2011년 4월 다라(Darra)에서 보안대에 의해 사살 당하면서 격화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바사르 알 아사드 정권에 대항하여 전국적인 시위가 일어났고, 정부에 대한 유혈 진압이 자행되었다. 시리아 사태는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 거대한 숫자의 난민을 양산하면서 국제 사회에 심각성을 알렸다.

그런데 시리아 사태의 비극은 종파적인 분열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시리아 인구의 약 74%는 수니파 아랍인들이고 16% 정도는 알라위 쉬아파이고 나머지 10%는 기독교다. 아사드 가문은 알라위파 쉬아이며 수십년 동안 국가를 통치했다. 수니파 다수는 알라위 정권에 의해 차별 받고 무시를 겪었다. 시리아의 수니파 무슬림들 가슴 속에는 깊게 드리면 분노와 상실감이 있었다. 시리아의 정치 체제는 고도로 중앙 집중화되어 있고 권력은 대통령의 손아귀에 있다. 충돌은 아사드 정권에 반대하여 시작되었지만 일련의 지역정치적 층위에서 여러 강소국들이 개입하면서

Syria(New Delhi: Pentagon Press, 2017).6.

¹⁰ Kayhan Barzegar, "Iran, New Iraq and the Persian Gulf Political-Security Architecture", The Irania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20 (1), (Winter 2007-08): 93-110.

¹¹ Andrew Terrill, The Saudi-Iranian Rivalry and the Future of Middle East Security (Carlisle, PA: U.S.Army War College Strategic Studies Institute, 2011),45.

¹² Nasr Vali, The Shia Revival: How Conflicts Within Islam Will Shape the Future(New York: W. W. Norton & Company, 2007),3.

중과적 성격으로 발전했다. 아사드 정권은 이란이 배후에서 지원했다.

이란과 시리아는 지역 내에서 동맹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서로를 필요로 한다. 레바논의 헤즈볼라도 아사드 정권을 돕는 축에서 내전에 개입했다. 헤즈볼라는 시아파 무장 조직으로서 아사드 정권과 이란과 연결되어 있다. 반면 반아사드 수니파를 지원하는 국가로는 사우디 아라비아, 카타르 등이 계속해서 물자와 정치외교적 지원을 공급했다. 사우디 아라비아와 카타르는 공개적으로 반군이 무장화 하는데 관여했고 외교적 방식으로의 문제 해결에 대한 희망을 갖지 않았다. 알카에다와 무슬림형제단의 개입은 분쟁의 종파적 양상을 더욱 심화 시켰다.

2014년 칼리프 국가의 건설을 선언한 ISIS의 등장은 시리아 위기가 종파적 전쟁과 국제전으로 치닫게 만든 결정적 요소였다. ISIS가 이라크와 시리아의 상당한 영토를 장악하는데 성공했다. ISIS는 사이코스-피코 협정이 만든 이라크-시리아 국경선을 무효화 하고 두 나라 사이의 갈라놓은 그 협정의 정통성을 거부했다. ISIS에 가담한 전사들의 수는 미국 CIA 자료에 따르면 2,000명에서 31,500명 정도로 추산한다¹³. ISIS는 이라크로부터 사단급 군사 시설을 접수했고 암시장에서 불법적 거래를 통해 무기들을 획득했다.

한편 아사드 정권에 대항하여 전투를 벌였던 지하드 테러조직으로는 ISIS 외에도 시리아레반트정복전선(Jabhat Fateh al-Sham)이 있었다. 이 단체는 이전까지 알누스라로 알려졌고 알카에다의 연계 조직이었다. 알 누스라 전선을 이끈 알 골라니에 따르면 이 조직 안에 미국인, 유럽인, 아시아인, 러시아인 그리고 체첸인 등을 포함하여 외국 전사들이 약 30%를 차지했다고 한다¹⁴ 골라니는 시리아에서 그들의 주요 목적은 아사드 정권을 전복하고 헤즈볼라와 같은 아사드 동맹 세력을 패배시키는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시리아의 알라위파를 조준하거나 시리아 영토를 미국이나 서방 세계를 공격하는 발사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했다¹⁵ ISIS나 알 누스라와 같은 시리아 내전에 참여한 무장 조직들은 사우디 아라비아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았다¹⁶

시리아의 사건 전개는 지역 내에 힘의 균형에 영향을 미쳤다. 폭력과 불안정이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시리아 외부 국가들의 개입은 더욱 노골화 되었다. 그리하여 시리아 내의 모든 세력들은 외부의 세력들의 지원을 받는 양상을 나타냈다. 아사드 정권은 이란, 러시아, 헤즈볼라의 지원을 받아 무기, 자금, 지상전투 물자 등을 마련했다. 무슬림형제단은 카타르와 터키와 강한 연결고리를 갖고 있었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살라피 무장 조직들을 자금 지원한다는 혐의를 받았다. 미국, 터키, 사우디 아라비아, 카타르 등은 반아사드 연합군을 인정하고 지원했다.

시리아 사태는 다른 무엇보다 사우디 아라비아와 이란의 관계 때문에 더욱 악화되었다. 종파적 차원에서 수니파 와하비즘을 표방하는 사우디 아라비아와 혁명적 쉬아파를 확산하는 이란의 충돌이 시리아 사태에서 대리전을 벌인 것이다. 이란에게 시리아는 미국, 이스라엘, 사우디 아라비아 그리고 다른 걸프지역 아랍국가들을 다루는데 있어 지정학적 동맹이다. 무엇보다 이란에게 있어 레바논의 헤즈볼라는 가장 소중한 자산이다. 반대로 사우디 아라비아에 있어 아사드 정권은 시리아와 지역 차원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방해하는 세력이다. 사우디 아라비아와 이란의 경우 시리아 문제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한 어떤 타협이나 협의를 시도한 적 없다. 반대로 이 강국들의 개입은 분쟁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시리아는 또한 걸프협력기구(GCC) 내부의 갈등 관계에 대한 중요한 원인들 중의 하나다. 사우디 아라비아, UAE 그리고 바레인 등 카타르에서 자국의 대표들을 불러들였다. 이들 나라는 카타르가 GCC 조약을 어기고 있다고 비판한다. 즉 GCC 회원국의 안전과 안정을 위협하는 세력과는 공모하거나 지원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카타르가 준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리아 내전에서 사우디 아라비아는 살라피 조직을 지원한 반면 카타르는 사우디의 위협인 무슬림형제단을

¹³ "ISIS can 'muster' between 20,000 and 31,500 fighters, CIA says", CNN, <http://edition.cnn.com/2014/09/11/world/meast/isissyria-iraq/> (accessed September 12, 2014).

¹⁴ "Nusra leader: No end to conflict with ISIL in Syria", Al Jazeera, <http://www.aljazeera.com/news/2015/06/nusra-leader-conflict-isil-syria-150604021024858.html> / (accessed June 4, 2015).

¹⁵ "Nusra leader: Our mission is to defeat Syrian regime", Al Jazeera, <http://www.aljazeera.com/news/2015/05/nusra-front-golani-assad-syriahezbollah-isil-150528044857528.html> / (accessed May 28, 2015).

¹⁶ "Saudi Arabia boosts Salafist rivals to Al-Qaeda in Syria", Reuters, <http://www.reuters.com/article/us-syria-crisis-jihadists-insight/idUSBRE9900R020131001> / (accessed October 1, 2013).

지원했던 것이다. 사우디 아라비아 입장에서는 무슬림형제단의 강화는 카타르의 지위를 유리하게 하는 것이고 사우디 아라비아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는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사우디 아라비아는 시리아 내에서 무슬림형제단을 금하고 살라피 조직들을 강화시키려고 했다.

시리아 유혈 사태가 시작될 때부터 걸프지역 국가들은 시리아 정부를 비판하고 즉각 살상을 멈추라고 요구했다. 나아가 시리아 위기를 국제화 시키려고 했고 아사드를 권력에서 축출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 GCC 국가들은 아사드가 없는 시리아를 제일 목표로 설정했다. 왜냐하면 아사드 정권과 이란이 유착해 있기 때문에 지역 안에서 GCC 국가들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란이라는 잠재적 위협을 축출하는 것이 필요했던 것이다. 즉 이란-시리아 관계는 지역에서 전통적인 수니파 지배력을 위협하는 쉬아 반달지역('Shia crescent')의 기동인 것이다. 지난 몇년 동안의 쉬아 영향력의 증가는 걸프 지역의 수니파 정권들에게 큰 우려가 되었던 것이다.

GCC 국가들 중에 사우디 아라비아와 카타르는 공개적인 아사드 정권에 대항하는 반군의 무장을 요구했다. 모든 종류의 정치적 외교적 해결 노력이 실패했기 때문에 반군을 무장화 하는 것이 그들에게 남겨진 마지막 선택이라는 것이었다. 반군 세력에게 무기를 지원하면서 사우디 아라비아와 카타르는 시리아 위기를 리비아 식으로 즉 무력을 사용하여 아사드를 제거하고 다른 정권을 세우는 방향으로 몰아가고자 했다.

다른 한편, 사우디 아라비아와 같이 아랍 에미레이트(UAE)도 시리아의 사태 전개에 관심을 기울였다. 분쟁에 대한 정치적 해결을 요구했고 아사드 정권의 사악함을 비난했다. 아랍 에미레이트는 시리아에서 아사드 정권을 전복하고 수니파 정권을 수립하는 것이 수니파 시리아인들에 대한 폭력을 종식하는 방법으로 설정했다.¹⁷ 이것은 아랍 에미레이트 외교부 장관인 압둘라 빈 자이드의 2015년 10월 UN 총회 70회 회의에서 한 발언에 반영되어 있다. 자이드 장관은 안전보장이사회가 시리아 위기를 해결하는 동의에 이르고 주요한 의미를 다해야 하며, 시리아 사회의 모든 국민들을 반영하는 새로운 정부 구성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¹⁸ 또한 그는 시리아의 위기는 정치적 그리고 안보 진공상태로 이어져 ISIS와 알 누스라 전선과 같은 테러 단체들에 의해 장악된다고 연설했다.¹⁹

그래서 시리아에서 ISIS에 대항하는 군사 작전에 아랍 에미레이트 또한 참가했다.

카타르 또한 아사드 정권의 전복을 요구했다는데 이는 시리아 국민들이 폭력과 고통 속에 놓여있다고 믿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테러리즘과 아사드 정권의 독재 둘 다 종식되어야 한다고 카타르는 주장했다.²⁰ 이처럼 GCC 국가들의 시리아 위기 접근은 정치적 개혁에 대한 요구에서부터 사태를 국제화시켜 정권의 반대세력을 무장시키자는 쪽으로 변했다. 그들에게는 이것이 아사드를 제거하고 우호적인 정권을 시리아에 구축하는 절호의 기회로 보였다.

그러나 아사드 정권을 처음부터 지원했던 이란이 있었다. 일련의 아랍의 봄 사태의 초기에 이란은 이집트, 바레인 그리고 예멘에서의 광장 시위를 지지했다. 그러나 국민을 억압하는 아랍 독재 정권들을 전복시켜야 한다는 입장에 있어서 이란은 변화를 보였다. 다시 말해서 초기는 지지했지만 그 시위가 시리아를 강타했을 때 반대로 아사드를 구하기 위해서 모든 종류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란과 시리아는 상이한 여건과 지향점을 갖고 있다. 이란은 아야톨라를 국가의 최고 지도자로 여기는 이슬람 신정정치를 표방하지만 시리아는 바트당 세속주의 정치 체제를 선호한다. 외교 정책에 있어서 이란은 걸프 지역에 초점을 두는 반면에 시리아는 이스라엘과 레바논을 그들 안보 위협의 대상으로 설정한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두 나라는 협력을 긴밀히 유지하는 공통의 기반을 갖고 있다. 그 공통의 이해는 바로 반시온주의와 반제국주의로 대별되는 미국에 대한 입장이다. 시리아와 이란은 미국으로부터 각각 1979년과 1984년에 테러리즘을 후원하는 국가로 찍혔다. 반시온주의는 이들 두 나라의 외교 정책의

¹⁷ Alissa Fromkin, "UAE Foreign Policy in Iraq & Syria", International Affairs Review, <http://www.iar-gwu.org/content/part-three-uaeforeign-policy-iraq-syria/> (accessed March 5, 2015).

¹⁸ "Abdullah bin Zayed: United Arab Emirates stands firm with the Kingdom of Arabia against any Iranian attempts to interfere in the internal affairs of the Arab States", Emirates News Agency, <https://www.wam.ae/en/news/emirates/1395286245103.html>. (accessed October 3, 2015).

¹⁹ "The General Debate of the 70th Session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https://www.un.int/uae/statements_speeches/general-debate-70th-session-united-nations-generalassembly-1. (accessed October 2, 2015).

²⁰ Interview of Qatari Foreign Minister Khalid Al-Attiyah with The New Statesman, <http://www.newstatesman.com/world/middle-east/2015/09/exclusive-interview-qatari-foreign-minister-syria-and-refugee-crisis>. (accessed September 29, 2015).

핵심이며 지역에서 그들의 정책을 결정짓는 중요한 이데올로기다. 두 나라는 그래서 하마스와 헤즈볼라는 지원하며 지역에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항하는 방어 전선을 구축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란은 아사드 정권을 보호하는 것이 전략적인 이익이다. 이란은 수니파가 아사드 제거 후에 시리아에 권력을 장악하는 것을 염려한다. 시리아 국민의 대다수가 수니파라는 사실에서 아사드 정권 붕괴는 곧 시리아에서 사우디 아라비아와 다른 GCC 국가들의 우위를 초래할 것이 명확하다. 이런 변화는 레반트에서 힘의 균형을 변화시켜 사우디 아라비아를 유리하게 하고 이란에게는 큰 손실을 끼칠 것이다. 헤즈볼라는 이란에게 저항의 축을 형성하는 전략적 요소이며 헤즈볼라에 대한 통제력 약화는 레반트에서 이란 영향력의 소멸로 나타날 것이다. 시리아는 사우디 아라비아와 GCC 국가들을 막아내는 방파제로서 이란에게는 중요한 전략적인 파트너다. 아사드 정권은 또한 미국에 대해서 고분고분 하지 않는 입장을 견지하기 때문에 이란과 시리아는 자연스러운 동맹으로 관계하게 만든다. 이란은 수십년 동안 미국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있다. 시리아 위기의 시작 이후 미국과 서방은 시리아에서 이란을 배제하기 위해 이란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든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미국과 서방은 시리아에서 이란의 활동을 억제하는데 성공적이지 못하다.

서아시아의 복잡한 정치적 스펙트럼에서 종파적 정치는 동맹과 동반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 이란과 시리아 정권은 쉬아파다. 시리아와 연계함으로 이란은 쉬아 이슬람 혁명 이데올로기를 확산하는 기반을 얻었다. 이란과의 동맹은 아사드 정권에게 내부의 수니파 다수 국민들을 통치하는 힘이 되었다. 1980년대 초반 동안 쉬아 종파적인 연결점이 시리아와 이란의 동맹 관계를 위해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지만 지역 세력 관계의 변화 때문에 종파적 요소가 정치적으로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시리아의 종파적 분쟁은 ISIS 세력이 박멸의 수준에 이르면서 수습의 가닥이 잡히고 있다. 시리아 내전의 내부적 행위자들 관계에서 발생한 충돌이 시리아 외부의 지역적 강국들의 개입으로 대리전 양상으로 확산하다 국제적 강대국들의 본격적 개입을 통해 세력 재편이 되어가는 분위기이다. 시리아 내부의 아사드 정권과 수니파 대중 사이의 충돌이 시리아 아랍의 봄 사건의 단초였다면 사우디 아라비아와 이란, 그리고 터키 등과 같은 지역 강국들의 개입은 종파적 갈등 혹은 민족적 헤게모니 장악 양상으로 분쟁의 판을 키우는 결과를 불러왔다. 사우디 아라비아와 이란의 종파적 헤게모니 싸움은 비단 시리아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서아시아 지역 안에 속해 있는 수많은 나라들과 얽혀 있기 때문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복잡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이 국가 내부의 종파적 갈등을 성숙하게 관리했다면 이런 종파적 내전 나아가 국지적 냉전으로까지 국가가 파괴되진 않았을 것이다. 이란과 사우디 아라비아라는 지역 강국들의 헤게모니 충돌이 끌어들이는 대리전의 가능성을 지정학적으로 안고 있는 시리아이기 때문에 분쟁의 오랜시간 초도화 양상으로 치닫게 되었다. 터키와 쿠르드 같이 민족 혹은 종족적 차원에서 역사적으로 축적된 모순 구조가 중층적으로 얽혔고, 여기에 미국-중국-러시아가 국제 질서의 헤게모니 싸움의 일환으로 개입하는 지점이었기 때문에 시리아 사태는 목숨을 건 전면전의 양상으로 빠져들었다. 여기에 반미제국주의와 반시오니즘 투쟁의 이슬람 국제운동 조직이 침투했으니 우리는 시리아 같은 작은 나라가 종파적 갈등의 단초 때문에 겪어야 하는 파괴력의 가공할 만한 치명적인 끝점을 목격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란과 사우디 아라비아 보다 더 덩치가 큰 국제 정치의 행위자들이 가세하고 그들이 우선적으로 각각의 지정학적 이익을 우선하여 이해득실의 문제에 조정을 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분쟁 상태가 안정화 되는 것을 또한 보게 된다. 러시아의 본격적인 개입과 미군의 주둔과 같이 핵을 보유한 세계 강국들의 현실주의적 접근에 의해서 손익 계산을 어느 정도 윤곽을 나타냈고, 그 다음 층위에서의 지역 강국인 사우디 아라비아, 이란, 터키 같은 나라들은 강대국들이 잡아 놓은 매트릭스 위에서 자신들의 몫을 챙기는 수순으로 질서를 찾아가는 것이다. 거기에는 ISIS의 파괴력이 기여한 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시리아 내전의 모든 참가자들에게 ISIS에 가공할 만한 전투력에 놀라서 이 전투 조직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갈등적 협력의 수준에 도달하면서 우선 ISIS를 퇴치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대리전의 조건 속에서 ISIS 변수를 자국의 이익을 위해 어느 정도 이용할 수 있을지 계산하던 단계를 지나 ISIS는 이용 카드로서는 너무 위험하다는 인식을 주요 행위자들이 공유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시리아의 종파적 분쟁은 해결이라기 보다는 봉합 수준으로 덮어 둘 것이며, 종파적 분쟁의 지역적 갈등은 시간이 지나도 좀처럼 바뀔 수 없는 상수로 남을 것이다. 다만 그 상수를 소멸로 만들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모델은 시리아 자신들에게 있다. 종파적 차이의 단초를 민주적 합의 과정과 이익 배분을 통해 국가 공동체성을 출범시킬 수

있다면 시리아의 평화 시대가 열릴 것이다.

2. 예멘 내전과 종파적 분쟁

아랍의 봄이 초래한 종파적 분쟁이 시리아의 경우 봉합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한다면, 예멘의 경우는 아직 진행형에 멈춰 있다.

예멘의 정치는 1990년 통일된 이후 권위주의 정치체제, 지역민의 부족적 정체성 그리고 경쟁하는 지역적 외부적 강국들이 얽히며 전개됐다. 석유로 부유한 걸프 지역의 이웃들 중간에 자리잡은 아라비아 반도의 최빈국으로서 예멘은 지역 강국들의 갈등적인 이해관계에 취약하다. 1967년에 영국이 남부 예멘에서 철수한 이후 공산주의 세력이 장악하여 1970년 이후 예멘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을 수립했고, 1990년 5월에 남북 예멘은 통일을 이루었다. 그 초대 대통령이 알리 압둘라 살레이다.

2011년 1월 살레 대통령에 반대하는 시위는 튀니지에서 벤 알리 정권과 이집트의 호스니 무바라크 정권이 붕괴하면서 시작했다. 이 두나라의 시위대의 성공에 고무된 수천명의 예멘 사람들은 정치 경제적 개혁을 요구하며 살레 대통령의 하야를 외치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시위대 대부분은 교육을 받은 청년들로서 살레의 전체주의 통치와 부패, 경제적 저발전 그리고 실업 등으로 좌절된 사람들이었다.

며칠 사이에 시위는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갔고 전국으로 확산했다. 살레 대통령은 정치적 헌법적 개혁을 약속하고 2013년에 치러질 차기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하지 않겠다는 선언한다. 그러나 그의 약속은 그의 퇴진 외엔 다른 아무 것도 요구하지 않는 시위대를 설득시킬 수 없었다.

시위가 격해지자, 살레는 그의 경호 부대를 움직여 시위자들을 통제했다. 경호 부대와 시위자다 사나 거리에서 폭력적으로 충돌하자 수많은 사상자가 속출했다. 살레의 지지자들과 시위대 사이에도 수차례의 충돌이 벌어졌다. 살레 정권에 의해 가해진 강압적 행태는 대중들에게서 그의 정당성을 갉아먹었고 권력 누수로 보여졌다. 2012년 4월 20일, 살레의 가장 강한 군장성 중의 한명인 알리 모센 알 아흐마르(Ali Mohsen Al Ahmar)가 시위대에 동조했고 그를 따라 다른 장교들도 시위대 편에 붙었다. 급속도로 살레 권력은 무기력했고 사우디 아라비아와 걸프협력기구(GCC)의 정치적 외교적 중재 이후에 살레는 대통령직에서 하야 하고 권력을 부통령에게 이양한다. 2012년 11월, 살레는 권좌에서 내려와 GCC 권고안(GCC Initiative)에 서명한다.

시위대가 기세를 받은 후 종파적 분열은 더욱 선연되었는데 이는 다른 분파들이 자신들을 종파적 차이와 동일시 하기 시작했고 강성 집단들은 다른 집단들에 대항하는 싸움을 결도록 사람들을 이끌어갔다²¹.

2012년 살레는 부통령 만수르 하디(Abdo Mansour Hadi)에게 권력을 이양하고 퇴진하는데 동의한다. 이어서 열린 1월 국회는 살레에게 퇴진과 이행과정의 대가로 형집행에 대한 완전한 면책을 부여하는 법을 승인한다. 그 법은 또한 그의 부하들에게 민간 아니면 군사 직무에서 어떤 범죄나 심지어 테러 행위를 해도 정치적 면책권을 부여하는 것이었다²².

GCC 권고안(GCC Initiative)은 부통령 하디에게 대통령의 전권과 권위를 주었고 두개의 국면에서 전환이 완전하도록 촉구했다. 우선 민족 통일 정부가 형성되어야 하고 만장 일치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민족 통일 정부의 책임은 폭력의 중지를 공고히 하고 인도주의적 접근을 촉진하며 적합한 법적 행정적 기구를 만드는 것이었다.

부통령은 외교정책, 경제정책 그리고 군사정책과 관련하여 전권을 갖게 될 것이고 민족대화회의(National Dialogue Conference, NDC)를 개최하는 책임을 지게 되었다. 민족대화회의는 헌법 입안, 헌법적 개혁, 후퇴, 민주적 개혁, 국민화해, 취약 집단에 대한 보호권,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의 주제들을 토의할 것이었다²³.

대통령 선거는 GCC 플랜을 서명한 후 90일 안에 실시해야 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헌법에 따라 주어진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²¹Farea Al Muslimi, "How Sunni Shia sectarianism is poisoning Yemen",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http://carnegieendowment.org/syriaincrisis/?fa=62375>.

²² "Yemeni parliament grants President Saleh full immunity from prosecution", Al Arabiya <https://english.alarabiya.net/articles/2012/01/21/189609.html>. (accessed January 21, 2012).

²³ "Agreement on the implementation mechanism for the transition process in Yemen in accordance with the initiative of the Gulf Cooperation Council (GCC)", <https://peacemaker.un.org/yemen-transition-mechanism2011/> (accessed Feb. 21, 2019).

2013년 3월 18에서 2014년 1월 24일 기간 동안 민족대화회의가 열렸는데 모든 주요 정당들, 집단들 그리고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총 565명의 사회의 다른 분야들을 대표하는 대리자들이 그 대화에 참여했다. 민족대화회의는 남부 이슈, 사다 후티 이슈 등과 같은 9개의 주제들에 대해 논의했고 6개월 안에 최종 문건을 만들도록 기대되었다. 그러나 반복된 파열과 특히 후티와 남부세력들에 의한 태만 때문에 최종시한을 맞추는데 실패하고 만다. 2014년 1월에 민족대화회의의 최종 문서는 총회에서 받아들여졌고 헌법 초안 위원회에 넘겨졌다. GCC 권고안에 따르면, 헌법 초안은 논의를 거쳐 국민투표에 회부되어야 했다. 그러나 후티는 국가의 연방 구조라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았다. 대통령 하디가 주관한 위원회는 예멘을 6개 구역 즉, 북부 4구역(Azal, Saba, Janad, Tahama)과 남부 두 구역(Aden, Hadramawt) 등으로 나누도록 제안했다. 후티와 남부 세력 모두 그것을 거절한다. 후티 지도자 알 바케이티(Mohammed Al Bakheiti)는 이 계획은 예멘을 가난한 지역들과 부유한 지역들로 나누는 것이라고 말한다. 남부 세력은 그 제안은 기대에 못 미친다고 말한다²⁴.

그리고나서 2014년 9월에 수도 사나를 후티가 장악하는 일이 벌어진다. 이 사건은 전국적으로 폭력을 촉발했고 민족대화회의 성과들을 무효화 하는 것이었다. 2015년 1월에 후티는 사나의 대통령 궁을 접수한다. 2015년 2월 6일에는 국회 해산을 선포한다. 5명의 대통령협의회가 2년 임시 임기로 대통령 하디를 대체하고 혁명 위원회가 새 국회를 구성하는 일을 맡을 것도 선포한다²⁵. 하디는 가택 연금에 처해졌고 나중에 풀려나 아덴으로 도망간다. 이 사건은 전국을 정치적 불안정으로 몰아갔고 폭력 사태는 증가 했다. 전환 과정은 후티의 수도 장악과 함께 극심한 타격을 받았다.

한편 후티는 자이디 쉬아 분파에 속하는데 정부에 대항하여 싸웠고, 정부에 의한 만연한 부패와 쉬아파에 대한 사회경제적 방관, 그리고 수니 와하비즘 영향력의 증가 허용과 미국과의 동맹을 고발했다. 후티는 1990년대 사다 지역에서 성장하는 살라피 영향력에 반응하여 자신들의 운동을 시작했다. 후티가 주장하는 것은 유일하게 정통한 이슬람적 통치는 한 대 이맘에 의한 통치라는 것이다²⁶. 알 후티(Hussein Badreddin Al Houthi)는 2004년에 살레 정권에 반대하여 무장 봉기를 개시한다. 후티와 정부군의 빈번한 충돌로 예멘의 안전 상태는 갈수록 악화되었다. 후티 반군과의 무력 충돌 중지 협약을 통한 정부의 안정 유지 시도는 참혹하게 실패했다.

정부는 후티가 북부 예멘에 분리국가 창설을 추구한다고 비난했다. 정부는 그들이 이란과 공모하고 있다고 본다²⁷. 이전의 살레 정권은 후티와의 수차례에 걸친 충돌을 하며 그들을 정치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중립화 시키는 시도를 했다. 2010년에 후티는 정부와 6개 항의 합의에 서명했지만 합의는 휴지 조각이 되었다. 2011년 대중적 봉기는 후티에게 기회를 만들어주었는데 이는 시위대와 후티는 살레에 대한 반대를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정치적 혼돈과 권력 공백을 이용하며 대중적 지지를 넓혀갔고 국가적 주류의 위치를 요구했다²⁸. 후티는 예멘이 처한 불안정한 상황을 활용했다. 예멘의 경제는 흔들렸고 살레는 과도하게 사우디 아라비아와 미국이 주로 제공하는 외국 원조에 의존적이었다. 빈곤한 사회경제적 여건과 함께 국가는 높은 실업률에 처해 있었다. 예멘은 알카에다의 보호처가 되었고, 아라비아반도 알카에다(Al-Qaeda in the Arabian Peninsula (AQAP))는 정부로부터 별다른 군사 작전을 직면하지도 않고서도 예멘을 출발점으로 하여 활동하였다. 남쪽에는 남부세력 운동이 자치를 요구하며 기반을 얻기 시작했고 종종 폭력적이 되어 정부를 향한 또 하나의 도전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었다. 그러한 고질적인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안보 문제에 직면하여 예멘은

²⁴ "Shia rebels, southern group slam Yemen federation plan" Saudi Gazette, <http://saudigazette.com.sa/article/74632/> (accessed Feb. 21, 2019).

²⁵ "Yemen's Houthi rebels announce government takeover", The Guardian, <http://www.theguardian.com/world/2015/feb/06/yemenhouthi-dissolves-parliament> (accessed Feb. 21, 2019).

²⁶ "What is the Houthi movement?", Religion and Politics, <http://www.religionandgeopolitics.org/houthi-movement/what-houthimovement/> (accessed September 7, 2016).

²⁷ "Yemen crisis: Houthi rebels are Iran stooges, says Hadi", BBC News, <http://www.bbc.com/news/world-middle-east-32098607>. (accessed March 29, 2015)

²⁸ "The Huthis: From Saada to Sanaa", Crisis Group, <https://www.crisisgroup.org/middle-east-north-africa/gulf-and-arabian-peninsula/yemen/crisis-group-yemen-update-2/> (accessed Feb. 21, 2019).

실패국가에 처했다. 정부 당국들은 사회경제적 문제들을 안정시키지 못했고 알카에다나 후티 운동으로부터 부상하는 국내 치안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그러한 국내적 불안정 상황을 살레가 감당하기에 쉽지 않았고, 후티에 의해 그런 상황은 이용을 당했다. 그리고 후티의 또 다른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수니파 이슬람의 엄격한 해석을 따르는 살라피스에 맞서 싸우는 것이다. 다마즈 도시(Dammaj City)는 2011년에 시작된 두 집단 간의 폭력적 충돌의 중심이었다. 다마즈는 후티의 본거지인 사다지역에 인접해 있다. 후티는 살라피들이 수많은 외국 전사들을 이끌고 다마즈로 와서 자신들과 전투를 벌인다고 주장한다. 살라피들은 외국인들이란 하디스 신학교(Dar Al Hadith seminary)에 유학 온 사람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²⁹.

다마즈에 대한 후티의 중무기 공격과 도시 봉쇄는 양 측으로부터 수백명의 사상자를 내는 충돌로 악화되었다. 2014년 1월 정부는 전투중지를 중재하였고 그것을 모니터링하는 군대를 전개했다³⁰.

심각한 전투는 살라피들이 정부군과 싸우는 동부 도시인 타이즈(Taiz City)에서도 발발한다.

후티가 무장 작전을 전개하는 능력은 예멘 정부를 신경 쓰게 만드는 원인이었는데 정부는 이것이 평화를 향한 모든 노력을 탈선시킬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했다. 수차례의 협상들 후에 하디 대통령, 할레드 바하흐(Khaled Bahah) 수상, 그리고 내각은 2015년 1월 총사퇴한다. 후티의 수도 점령 후 하디 대통령은 아덴으로 도망쳤고, 날마다 상황이 악화되자 리야드로 이동하여 GCC 국가들에게 예멘 개입을 요청했다. 그다음 사우디 아라비아는 후티를 사나에서 몰아내기 위한 군사적 개입을 결정한다.

그런데 다른 한편, 사다에서 사나까지 후티의 군사적 승리는 전직 대통령 살레와 그의 아들 전직 공화국 수비대장 알리 살레(Ahmad Ali Saleh)의 긴밀한 협력 때문에 더 쉽게 이뤄졌다. 아직도 살레 가족에 충성하는 예멘 군부 조직이 있었고, 살레의 조카들 중 셋은 엘리트 군사조직을 통솔했다. 권좌에게 축출 당한 후에도 살레는 여전히 일련의 군부세력에 대한 많은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면책권을 받은 결과, 살레는 일반인민회의(General People's Congress, GPC)를 계속 이끌었다. 일반인민회의(GPC)는 강력한 후견자 네트워크를 통제하고 관료조직, 종교계 그리고 부족 지도들 사이를 통하는 폭넓은 끈을 유지하고 있었다³¹.

살레의 주요한 힘은 군부와 정보부의 최상의 조직들에 대한 통제권에 있었다³². 그는 군조직에 대한 영향력을 사용했고 수도로 진군하는 후티를 지원했다³³. 일반인민회의(GPC)를 이끄므로 살레는 군부와 부족 연맹체를 조종하며 자신의 권력을 보존했던 것이다. 살레는 국가 전환 과정을 중지시키거나 위축시킬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었고, 그럼으로써 자신의 지원 없이 어떠한 변화나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살레는 예멘에서 분리-지배 전략을 계속했다. 그러나 후티 반군과 살레의 연합은 오래 가지 못하고, 2017년 12월 중국적으로 살레는 수도 사나에서 도망치다 후티 반군 저격수의 총에 사살당한다.

사우디 아라비아로선 2011년 아랍의 봄 이후 예멘의 불안정한 상황은 국가 안보에 대한 위험 요소가 아닐 수 없었다. 그리고 사우디 아라비아는 예멘 국내 일에 개입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남북 예멘이 통일을 이루기 전에도 그리고 현대 예멘에서도 사우디 아라비아는 영향력 있는 수십명의 부족 원로(Sheikh) 가족들과의 후견인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예멘의 국내 일에 개입한다. 이러한 부족 후견 네트워크는 예멘의 국내 정치적 움직임에 손을 내밀 수 있도록 도와 준다. 전통적으로 예멘 방향의 사우디 정책은 약한 국가를 갈등의 지역적 장으로 이용하기 보다 안정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동기에 따라 움직인다. 리야드는 예멘에 많은 돈을 정권과 정치 엘리트들에게 투자하고 있고 와하비 네트워크와 살라피즘을 확산한다³⁴.

²⁹ "Houthi-Salafi conflict rages on in northern Yemen", *Al Khabar*, <http://english.al-akhbar.com/node/17472>. (accessed October 31, 2013)

³⁰ "Yemen deploys troops to monitor ceasefire", *Al Jazeera*, <http://www.aljazeera.com/news/middleeast/2014/01/yemen-deploys-troopsmonitor-cessfire-201411153212890456.html>. (accessed Feb. 21, 2019).

³¹ Thomas Juneau, "Yemen and Arab Spring: Elite struggles, State collapse and regional security", *Orbis*, 57 (3), (2013), 411.

³² Ibid., 419.

³³ William A. Rugh, "Problems in Yemen, domestic and foreign", *Middle East Policy*, 22 (4), (Winter 2015), 146.

³⁴ "Yemen: Is peace possible?", International Crisis Group, Middle East Report No. 167, <http://www.crisisgroup.org/~media/Files/Middle%20East%20North%20Africa/Iran%20Gulf/Yemen/167-yemen-is-peacepossible.pdf>. (accessed Feb. 21, 2019).

살레와 리야드의 우정은 양측의 이익에 도움을 줬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예멘의 정책을 관리하여 국경 남부 지역 일어나는 위협을 피하는 반면 살레는 리야드로부터 엄청난 경제 원조와 정치 후원을 받았던 것이다.

살레에 대항하는 시위가 시작된 직후 사우디 아라비아는 예멘에서 발생하는 잠재적 도전을 세세하게 알아차렸다. 그 다음에 예멘에서 상황이 악화되었고 사우디의 관심은 비례적으로 올랐다. 리야드는 GCC 권고안이 성공하는데 중심적 역할을 했다. 우선 리야드는 국가의 안정을 위해 하디 정부 정통성을 회복하길 원한다. 비록 역사적으로 리야드는 내적으로 약하고 재정적으로 자신에게 의존적인 예멘의 유지를 원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손에 벗어나면서 예멘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의존적인 동맹으로 남길 원한다. 그리하여 리야드는 하디 정권이 예멘의 정통 정부로 복원되고 미래 로드맵을 결정하는 정치적 과정이 동시에 계속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다. 현재의 늘어나는 폭력과 정치적 불안정 상황에서 리야드는 사나에 사우디 왕국에 재정적으로 종속적으로 남은 우호적 정권을 원할 것이다³⁵.

그러나 후티가 사나를 장악했고 폭력이 전국적으로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정상성을 복원하는 것이 리야드를 위한 최고 우선순위일 것이다.

수도 사나를 향한 후티의 전진은 사우디 아라비아에게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졌다. 리야드는 후티를 예멘에 있는 테헤란으로부터 적극적인 정치적, 재정적, 이데올로기적 지원으로 움직이는 이란의 대리자(proxy)로 인식한다. 그러므로 후티의 영토 장악과 중무기는 사우디 왕국에 안보 위협을 제기한다. 예멘의 과편화가 정치적이며 종파적인 선들을 따라 더 심화되면 외부 행위자들, 특히 이란에 의한 끼어들음이 국가는 노출될 것이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후티 도전을 응대하기로 결정함으로써 남부 이웃 지역에서 이란의 영향력을 중화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리야드의 주 관심은 테헤란이 그 상황을 이용하여 사우디 왕국을 향해 문제를 일으킬 것이지, 아니면 전략적 이득을 얻는가 여부이다. 나아가 사우디 아라비아는 불안정한 예멘이 범죄자들, 도망자들, 해적들 등에 의해 장악되지 않나 주시한다³⁶. 따라서 예멘의 수도에 후티가 거점을 확보한 것은 사우디 아라비아에게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받아들 수 없는 것이었다.

사우디는 아랍 에미레이트, 바레인, 쿠웨이트, 카타르, 이집트, 요르단, 모로코, 세네갈 그리고 수단을 포함하는 연합군을 결성한다. 파키스탄도 초대했지만 성사되지는 않았다. 파키스탄은 사우디 아라비아의 오랜 동맹국이다. 그러나 파키스탄-이란의 가스 파이프라인(평화 파이프라인으로 알려짐)이 파키스탄의 주요 이익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우디 아라비아와의 관계에서도 균형을 유지하려고 한다. 오만의 경우도 사우디 주도 연합군에 참여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오만인은 이슬람 이바디 종파³⁷를 따르기 때문에 쉬아파와 수니파 사이의 종교적 선상에서의 지역적 분쟁에서 거리를 뒀던 것이다. 이바디 종파는 4대 칼리프 알리와 우마이야 건국자 무아위야 충돌 이전의 이슬람을 이상적으로 보기 때문에 수니파와 쉬아파 종파적 갈등 이전의 이슬람에 신앙의 중심을 두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종파적 갈등의 비개입주의 혹은 평화적 해결을 선호하는 집단으로 볼 수 있다.

2015년 3월 26일부터 27일 동안 공습 감행한 <결정적 폭풍 작전(Operation Decisive Storm)>에도 후티 반군은 상당한 전투력을 유지한다. 이때 미국은 연합군에 정보제공 방면으로 지원을 했지만 이란을 위시하여 러시아와 중국은 사우디 주도 연합군의 예멘 공습을 반대했다.

사우디 주도의 연합군을 상대하는 후티 반군의 놀라운 전투력에 대해서 예멘과 사우디 지도자들은 그 배후에 이란의 지원을 의심한다. 아랍의 봄 이후 8년째에 접어들었으면서도 아직 예멘에 겨울은 끝나지 않고 있다. 2018년 유엔은 13백만의 예멘 시민들이 기근 상태에 있고 지난 100년 동안 최악의 기아라고 경고했다³⁸. 유엔 난민기구의 2015년 8월 리포트에 따르면 10만 정도의 사람들이 예멘을 빠져 나갔고 사우디 아라비아와 지부티 쪽으로 이주했다고

³⁵ Peter Salisbury, "Yemen and the Saudi-Iranian 'Cold War'", The Roy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https://www.chathamhouse.org/sites/default/files/field/field_document/20150218YemenIranSaudi.pdf/(accessed Feb. 21, 2019).

³⁶ Stig Stenslie, "Not too strong, not too weak: Saudi Arabia's policy towards Yemen", The Norwegian Peace building Resource Centre, <https://www.files.ethz.ch/isn/162439/87736bc4da8b0e482f9492e6e8baacaf.pdf>/(accessed Feb. 21, 2019).

³⁷ "Ibadi",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Ibadi>/(accessed Feb. 21, 2019).

³⁸ "Yemen could be 'worst famine in 100 years'". BBC News, <https://www.bbc.com/news/av/world-middle-east-45857729/yemen-could-be-worst-famine-in-100-years/>(accessed Feb. 21, 2019).

한다³⁹. 2016년 9월 추정에 따르면 240만의 예멘인들이 내부 난민들이며, 12만명이 보호수양소를 찾고 있다고 한다⁴⁰.

여기서 우리는 시리아 내전의 전개 과정을 놓고 예멘 사태를 비교 분석하는 것은 이 지점에서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시리아는 종파적 경쟁의 주요 행위자인 사우디 아라비아와 이란 말고도 터키, 러시아, 중국과 같은 간접적 이해관계에 있는 행위자들도 각축을 벌였다. 그러나 예멘의 경우 사우디 아라비아의 남부 국경 지역이기 때문에 안보 문제의 직접적 당사자는 명확하고 그 사우디 아라비아의 라이벌인 이란으로서는 후티 반군이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같이 유용한 동맹 세력이 될 것이다. 시리아의 경우 이스라엘과 지리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면 예멘의 경우는 해상 석유 수송로의 안전 확보 차원에서 미국의 이익과 이 지역 에너지 자원에 직접적 이해 당사국인 중국의 이익이 조우한다. 예멘 내전의 장기화는 사우디 아라비아-이란의 대리전이 지배하기 때문이고 미국-러시아-중국의 이해 관계의 조정이 쉽게 결론 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유엔 결의안은 여러 차례 제출되었지만 국제 기구의 평화 노력이 역량은 예멘 사태의 해결에 아직 영향력이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 ISIS와 같은 괴물급 집단이 예멘의 분쟁 공간에서 공동의 적으로 부상하고 관련 국가들이 적대적 공조의 대열로 행위를 전략화 한다면 시리아처럼 종파적 분쟁은 억제되고 잠복 단계로 덮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어느 긍정적 신호도 예멘에서 아직 나타나지 않는다. 사우디 아라비아의 군사적 개입이나 미군의 드론을 사용한 폭격 그리고 후티 반군의 미사일 보복과 같은 전투 상황이 멈추지 않고 있으며, 사우디 아라비아와 이란의 종파적 충돌은 동결의 기미마저 없어 보인다.

시리아 내전이 ISIS의 파괴력에 의해 이해 당사국들을 결집시키게 만들었던 국면에 이란과 사우디 아라비아의 경쟁도 한시적으로 동결되는 듯 보였다. ISIS가 시리아와 이라크의 중부와 북부 모술 지역으로 팽창하는 것에 충격을 받은 미국과 서방 국가는 서둘러 ISIS 억제 정책의 일환으로 이란의 쉬아파 개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반대 급부로 이란에 대한 핵프로그램 관련된 제재와 압박을 풀었다. ISIS를 제압하는 지상군 투입이 간단치 않은 서방 국가들의 입장에서 이라크 쉬아파 정부를 도와 이란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희망했던 것이다. 그래서 2015년 7월 P5+1(중국, 프랑스, 러시아, 영국, 미국, 독일)이라는 포괄적 행동계획협정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이 체결된 것이다.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시작한 것은 팔레비 왕조 시기였지만 북한의 핵개발과 같이 2003년 사담 후세인의 축출이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사담 후세인은 대량 살상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아 미군의 침공을 받았지만 속수무책으로 별 저항 없이 제거당했다. 당시 미국은 사담 후세인에게 핵무기나 기타 대량살상 무기가 없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 그 당시 이라크가 실질적으로 이러한 파괴력이 큰 무기 체제를 갖추고 있었다면 핵 억제력처럼 미국이 쉽게 침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란은 2015년 7월 P5+1 협정에 동의함으로써 평화적 목적으로 핵 기술을 사용하며 절대 핵무기 개발 않겠다는 약속한다. 그러나 ISIS가 제거당하는 국면을 맞아 미국 트럼프 정부는 이란과의 핵협정을 일방적으로 무효화하고 또다시 경제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다. 2015년 포괄적 행동계획 협정 체결 당시 물론 사우디 아라비아의 거센 반대가 있었다. 표면적으로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 포기 약속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었지만, 실질적 이유는 이란의 경제 제재 해제 이후 경제적 강국으로 급부상하는 것을 경계했던 것이다. 이란이 경제 제재에서 벗어나면 국제 에너지 시장에 접근 확대 되면 글로벌 에너지 수출국으로서의 사우디의 지배적 지위는 도전을 받을 것이다. 해외 직접 투자 유치에 성공할 경우 이란 경제 급속히 발전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사우디 아라비아를 능가하는 지정학적 우위 가능성이 있고 중국과 러시아의 서아시아에서의 지정학적 영향력은 팽창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과 사우디 아라비아의 입장에서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할 하등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란이 핵개발을 할 경우 사우디 아라비아도 핵프로그램에 뛰어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 사우디 아라비아에 핵우산이 제공하는 지배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³⁹ Andreas Needham, "Almost 100,000 flee Yemen in four months since fighting started", UNHCR, <https://www.unhcr.org/news/latest/2015/8/55c0d5c09/100000-flee-yemen-four-months-since-fighting-started.html> (accessed Feb. 21, 2019).

⁴⁰ James Jeffrey, "Yemeni Refugees Still Stuck on Wrong Side of the Water", IPS, <http://www.ipsnews.net/2016/09/yemeni-refugees-still-stuck-on-wrong-side-of-the-water/> (accessed Feb. 21, 2019).

IV. 결론

이슬람의 역사 속에서 수니파와 쉬아파 갈등은 현대적 현상이라 볼 수 있다. 역사는 해석된 사실이기 때문에 현재를 투영한 과거의 해석이 역사를 구성하는 것이다. 수니파와 쉬아파의 분쟁이 시리아와 예멘에서 수많은 사망자와 난민을 초래하는 비극적 양상으로 나타나고 두 종파의 대표 국가인 사우디 아라비아와 이란이 대리전의 성격을 띄며 국지적 분쟁에서 충돌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재의 종파적 충돌의 관점으로 이슬람 역사의 종파적 분기점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종파적 분쟁은 종교의 문제라기 보다 정치적 갈등의 맥락 속에서 파괴력을 지닌다는 것이다. 이슬람은 처음부터 수니파가 주류였고 쉬아파는 갈등의 축이 되기엔 세력이 그만큼 강하지 않았다. 수니파 이슬람 왕조들을 전복하고자 했던 정치 세력들이 국가 건립에 성공한 파티마 왕조, 부와이 왕조 그리고 사파비드 왕조 등이 쉬아파 계열의 이슬람 국가에 포함되지만, 이러한 왕조들의 등장은 쉬아 종파 운동의 결과라고 보다는 정치적으로 해석되고 활성화된 종파 운동으로 봐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수니-쉬아 종파 분쟁의 단초가 되는 역사적 국면들을 찾아내고 분석했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와하비즘이라는 원리주의적 수니파 이슬람을 이데올로기로 하여 정치 권력인 사우디 왕가와 결합하면서 국가형성을 이룩한 경우이다. 반대로 1979년 호메이니가 주도한 이란 이슬람 혁명은 쉬아 이슬람을 국가 이데올로기로 전면으로 내세우며 반서구주의와 반서민주의 중심의 반체제 운동(anti-systemic movement)의 결과로 등장했다. 1970년대 사우디 아라비아는 석유를 무기화 함으로 막대한 오일머니를 확보하면서 지역 강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었고, 와하비즘을 세계로 확산함으로 국가의 지정학적 이익을 전체 이슬람 세계로 확대하고자 한다. 1970년 대의 이란은 막대한 석유 자원을 갖고도 서구 제국주의의 침탈과 타락한 왕정 그리고 서구적 이익의 발톱으로 전락한 주변 국가들에 때문에 낙후된 상태에 있었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고자 이란의 호메이니는 쉬아 이슬람의 정신에 따라 부패하고 불의한 세속 문명을 혁파하고 이슬람의 영구 혁명을 성공시키고자 했다. 당시 이란으로서는 이라크의 쉬아파 대중, 시리아의 아사드 쉬아파 지배세력, 그리고 레바논의 쉬아파 소수 집단이 쉽게 동맹관계를 맺을 수 있는 상대로 주목되었고, 사우디 아라비아는 이러한 쉬아 종파의 연대 움직임을 위협과 도전으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하여 수니-쉬아 종파적 갈등은 개별 국가를 넘어 지역적 규모로 확산했고, 대리전의 성격을 띄기 시작했다. 2003년 미군의 이라크 침공은 이라크의 쉬아파 세력의 고삐를 수니파의 억제 상태에서 풀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했고 이는 이란의 지역 내 영향력이 팽창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여기에다 이슬람 국제운동이 확산하면서 알카에다와 같은 준국가적인 무장 네트워크가 국가를 초월하여 그 세력을 구축하였고 이는 미소 냉전 이후에 따른 글로벌 신냉전으로 전개 되었다. 2008년 미국의 금융 위기는 세계정치와 세력의 균형을 흔들었다. 그동안 억제 되었던 반권위주의 민주화 운동이 아랍의 봄으로 분출했고, 시리아와 예멘과 같이 종파적 종족적 세력 관계가 복잡한 지역에서는 고삐 풀린 대량 살상의 내전으로 분출했다.

종파적 분쟁과 갈등의 중심에는 이란-사우디 아라비아의 대리전이 작동했고, 그러한 종파적 충돌의 무대 밖에는 미국-러시아-중국과 같은 강대국들이 헤게모니 경쟁이 움직였다. 그리하여 종파적 모순을 안고 있는 예멘과 시리아 같은 작은 나라는 비극의 현대사 속에 빠져들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종파갈등 즉 이란과 사우디 아라비아의 대리전의 메커니즘을 분석하였고, 시리아의 경우를 비교의 기준으로 삼아 예멘의 종파 분쟁의 해결 가능성을 모색했다. 결국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가장 단순하고 쉽고 기초적인 해법은 민주적 국가 건설이라고 볼 수 있다. 시리아와 예멘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정상적인 국가를 재건해야 한다. 종파적 차이를 내포하고 있지만 차이가 차별이나 억압이 아니라 신뢰와 다양성 존중으로 성숙하게 인정되는 민주질서를 창출해야 한다. 이것만이 외부의 헤게모니 세력이 분리 통치의 방식으로 개별 국가의 종파적 차이를 파국적 분쟁으로 몰아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다. 주변 강대국들이 종파적 차이를 이용하여 대리전으로 개입하여 국가를 파괴하고 그 분쟁으로 이득을 취하는 통로를 틀어막는 길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Andrew Terrill, *The Saudi-Iranian Rivalry and the Future of Middle East Security* (Carlisle, PA: U.S. Army War College Strategic Studies Institute, 2011)

Ghalib Tulhab Etaibi, "Gulf Cooperation Council: Arabia's Model of Integration"(PhD. diss. Boston College), 1984

Kayhan Barzegar, "Iran, New Iraq and the Persian Gulf Political-Security Architecture", *The Irania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20 (1), (Winter 2007-08)

Mark Lynch, *The Arab Uprising: The Unfinished Revolutions of the New Middle East*(New York:Public Affairs, 2012).

Nasr Vali, *The Shia Revival: How Conflicts Within Islam Will Shape the Future*(New York: W. W. Norton & Company, 2007)

Prasanta Kumar Pradhan, *Arab Spring and Sectarian Faultlines in West Asia: Bahrain, Yemen and Syria*(New Delhi:Pentagon Press,2017)

Ramazani, R. K.,*The Arab-Iranian Conflict: The Ideological Dimensions.*(New York: Praeger,1984).21.
regional security", *Orbis*, 57 (3), (2013)

Talmiz Ahmad,*Turmoil in West Asia: The Sectarian Divide Shapes Regional Competitions*(New Delhi:IDSA, 2016)

Thomas Juneau, "Yemen and Arab Spring: Elite struggles, State collapse and regional security", *Orbis*, 57 (3), (2013)

Vali Nasr, *The Shia Revival: How Conflicts Within Islam Will Shape the Future* (New York:W. W. Norton & Company, 2007)

William A. Rugh, "Problems in Yemen, domestic and foreign", *Middle East Policy*,22 (4),(Winter 2015)

2. 전자 자료

"50,000 children in Yemen have died of starvation and disease so far this year, monitoring group says." <https://www.chicagotribune.com/news/nationworld/ct-save-the-children-yemen-20171116-story.html/>(accessed Feb. 20, 2019).

Geneive Abdo et al., "The Sunni-Shia Divid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CFR). <https://www.cfr.org/interactives/sunni-shia-divide#!/sunni-shia-divide/>(accessed Feb. 20, 2019).

"Religion in Iraq".Wikipedia.https://en.wikipedia.org/wiki/Religion_in_Iraq/(accessed Feb. 20, 2019)

"ISIS can 'muster' between 20,000 and 31,500 fighters, CIA says", CNN, <http://edition.cnn.com/2014/09/11/world/meast/isissyria-iraq/> (accessed September 12, 2014).

"Nusra leader: No end to conflict with ISIL in Syria", Al Jazeera,

<http://www.aljazeera.com/news/2015/06/nusra-leader-conflict-isil-syria-150604021024858.html/> (accessed June 4, 2015).

“Nusra leader: Our mission is to defeat Syrian regime”, Al Jazeera, <http://www.aljazeera.com/news/2015/05/nusra-front-golani-assad-syriahezbollah-isil-150528044857528.html/>(accessed May 28, 2015).

“Saudi Arabia boosts Salafist rivals to Al-Qaeda in Syria”, Reuters, <http://www.reuters.com/article/us-syria-crisis-jihadists-insightidUSBRE9900R020131001/>(accessed October 1,2013).

Alissa Fromkin, “UAE Foreign Policy in Iraq & Syria”, International Affairs Review, <http://www.iar-gwu.org/content/part-three-uaeforeign-policy-iraq-syria/>(accessed March 5, 2015).

“Abdullah bin Zayed: United Arab Emirates stands firm with the Kingdom of Arabia against any Iranian attempts to interfere in the internal affairs of the Arab States”, Emirates News Agency, <https://www.wam.ae/en/news/emirates/1395286245103.html/>(accessed October 3, 2015).

“The General Debate of the 70th Session of the United—Nations General Assembly” https://www.un.int/uae/statements_speeches/general-debate-70th-session-united-nations-generalassembly-1/ (accessed October 2, 2015).

Interview of Qatari Foreign Minister Khalid Al-Attiyah with The New Statesman, <http://www.newstatesman.com/world/middle-east/2015/09/exclusive-interview-qatari-foreign-minister-syria-andrefugee-crisis/> (accessed September 29, 2015).

Farea Al Muslimi, “How Sunni Shia sectarianism is poisoning Yemen”,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http://carnegieendowment.org/syriaincrisis/?fa=62375>.

“Yemeni parliament grants President Saleh full immunity from prosecution”, Al Arabiya <https://english.alarabiya.net/articles/2012/01/21/189609.html/>(accessed January 21,2012).

“Agreement on the implementation mechanism for the transition process in Yemen in accordance with the initiative of the Gulf Cooperation Council (GCC)”, <https://peacemaker.un.org/yemen-transition-mechanism2011/>(accessed Feb. 21,2019).

“Shia rebels, southern group slam Yemen federation plan” Saudi Gazette, <http://saudigazette.com.sa/article/74632/>(accessed Feb. 21,2019).

“Yemen’s Houthi rebels announce government takeover”, The Guardian, <http://www.theguardian.com/world/2015/feb/06/yemenhouthi-dissolves-parliament/> (accessed Feb. 21,2019).

“What is the Houthi movement?”, Religion and Politics, <http://www.religionandgeopolitics.org/houthi-movement/what-houthimovement/>(accessed September 7, 2016).

“Yemen crisis: Houthi rebels are Iran stooges, says Hadi”, BBC News,

<http://www.bbc.com/news/world-middle-east-32098607>. /(accessed March 29, 2015)

“The Huthis: From Saada to Sanaa” , Crisis Group,<https://www.crisisgroup.org/middle-east-north-africa/gulf-and-arabian-peninsula/yemen/crisis-group-yemen-update-2/>(accessed Feb. 21,2019).

“Houthi-Salafi conflict rages on in northern Yemen” , Al Khabar ,
<http://english.al-akhbar.com/node/17472>. /(accessed October 31, 2013)

“Yemen deploys troops to monitor ceasefire” , Al Jazeera ,
<http://www.aljazeera.com/news/middleeast/2014/01/yemen-deploys-troopsmonitor-ceasefire-2014111153212890456.html>. /(accessed Feb. 21,2019).

“Yemen: Is peace possible?” , International Crisis Group, Middle East Report No. 167,
<http://www.crisisgroup.org/~media/Files/Middle%20East%20North%20Africa/Iran%20Gulf/Yemen/167-yemen-is-peacepossible.pdf>. /(accessed Feb. 21,2019).

Peter Salisbury,” Yemen and the Saudi-Iranian ‘Cold War’ ” , The Roy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https://www.chathamhouse.org/sites/default/files/field/field_document/20150218YemenIranSaudi.pdf/(accessed Feb. 21,2019).

Stig Stenslie, “Not too strong, not too weak: Saudi Arabia’ s policy towards Yemen” , The Norwegian Peace building Resource Centre,
<https://www.files.ethz.ch/isn/162439/87736bc4da8b0e482f9492e6e8baacaf.pdf>/(accessed Feb. 21,2019).

"Ibadi",Wikipedia,<https://en.wikipedia.org/wiki/Ibadi/>(accessed Feb. 21,2019).
"Yemen could be 'worst famine in 100 years' ".BBC News,<https://www.bbc.com/news/av/world-middle-east-45857729/yemen-could-be-worst-famine-in-100-years/>(accessed Feb. 21,2019).

Andreas Needham,"Almost 100,000 flee Yemen in four months since fighting started",UNHCR,<https://www.unhcr.org/news/latest/2015/8/55c0d5c09/100000-flee-yemen-four-months-since-fighting-started.html>/(accessed Feb. 21,2019).

James Jeffrey, "Yemeni Refugees Still Stuck on Wrong Side of the Water", IPS,<http://www.ipsnews.net/2016/09/yemeni-refugees-still-stuck-on-wrong-side-of-the-water/>(accessed Feb. 21,2019).

연구자 소개:

서동찬-한반도국제대학원 교수,서울대 정치학 학사,러시아 카잔 국립대 국제정치학 석박사.주요 연구와 강의 분야는 이슬람세계의 국제 정치와 분쟁,유라시아 역사와 국가연구.

Seo Dong Chan- Professor of Korea University of International Studies. Bachelor of Political Science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Master of Art & Ph.D. Degree in International Politics at Kazan National University in Russia. The main areas of research and teaching are international politics and conflicts in the Islamic world and Eurasia history & Country studies.